



## 물리학자의 書架

# 金貞欽 고려대 교수



물리학과 과학일반, 혹은 미래학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어쓴 일련의 계몽적 저술로 널리 알려진 물리학자 金貞欽교수(61). 전문연구서와 번역서를 포함, 무려 50여권의 저서를 펴낸 그는 “글은 정확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일이 책을 뒤져 확인한다. 고려대 이공대 215호실 그의 연구실 서가는, 그래서 빼곡하다 못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책이 혹은 꽂혀 있고 혹은 아무렇게나 누워 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글을 못쓴다”는 그에게 연구실은 “매월 그 달의 날짜수보다도 많은 건수의 원고를 집필”하는 ‘노동의 현장’이다.

사진 · 주명덕

